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296

Updated April 27, 2020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7
- BC Sales Report	
Tankers	11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5
Key Indicators	18
STL News & Information	20
Contact Information	21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ISSUE & TREND

1. 文 해운업 재건 키워드는 5·1·5..."충무공처럼 국난극복"

문재인 대통령이 23 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아 "'세계 5 위 해운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운재건 5 개년 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다시는 부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최대규모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의 명명식에 참석, "해운업계에 3800 억 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을 신속히 시행했으며 오늘 오전, 추가로 1 조 2500 억 원의 대규모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거제 방문은 5 개년 계획, 1 호, 세계 5 위라는 5·1·5 로 집약된다. '알헤시라스'호는 한국 해운 재건 5 개년 계획의 가시적 결과다. 건조 중인 12 척 중 1 호라는 상징성이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무너졌던 해운업의 자존심을 회복, 세계 5 위 해운강국이 된다는 목표에 의지를 드러냈다.

■ 다시 해운강국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명명식을 "대한민국 해운 재건의 신호탄"이라며 "알헤시라스호는 컨테이너 2 만 4000 개를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이고 올해 안에 같은 급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열두 척이 세계를 누비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400 여 년 전 충무공께서 '열두 척의 배'로 국난을 극복했듯, '열두 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우리 해운산업의 위상을 되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명실공히 해운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해운 강국'은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하나의 위기,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의 파도를 넘어서야 한다"며 "정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해운업계에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금융 납기연장,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3800 억 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을 신속히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추가로 1 조 2500 억 원의 대규모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선박금융과 '선박 매입후 재대선(S&LB)', 해운사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이 확대되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 19 로 인한 세계 물동량 감소와 세계 각국의 '대봉쇄' 관련 "국제사회와 협력해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I . ISSUE & TREND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 수혈'과 함께 '체질 개선'으로 우리 해운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할 것"이라며 △우리선박 이용시 인센티브 제공 등 상생형 해운모델 정착 △자율운항선박 등 4 차산업혁명 △친환경 미래선박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 5:1:5 구상, 나침반 윤도 전달

문 대통령은 사전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 출범 직전에 해운은 정말로 참담한 상황에 빠졌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세계 5 위 해운 강국 위상이다가 세계 7 위권의 해운 선사가 도산함으로써 순식간에 무너지는 상황이었다"며 "조선도 세계 1 위 조선강국 위상을 갖고 있었지만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후 2018 년 4 월, 해운재건 5 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3 년간 8 조원 투입, 신규 선박 200 척 건조 지원, 전략물자 국내 선사 우선 운송 등이 골자다. 이와관련 대우조선해양에서 7 척, 삼성중공업에서 5 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했으며 알헤시라스호는 그중 처음 태어났다.

배의 명칭은 스페인 지브롤터 해협에 있는 항구도시 '알 헤시라스'의 이름 그대로다. 한진해운이 이곳 부두에 선박 터미널을 갖고있다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했다. 청와대는 "유럽항로에서 잃어버린 해운업의 경쟁력을 되찾아 해운 재건을 이루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해운산업, 조선산업이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운 선장에게 전통나침반 윤도(지남철)를 전달했다. 해운산업이 길을 잃지 말고 망망대해를 헤쳐가 달라는 당부다. 국가무형문화재 제 110 호 김종대 윤도장이 만든 '윤도'를 썼다.

선박 명명식에 여성이 줄을 끊는 전통에 따라 김정숙 여사가 참석했다. 김 여사는 "이 배를 알헤시라스호로 명명합니다. 이 배와 항해하는 승무원 모두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합니다"라는 송사를 읽고 명명줄을 절단했다.

명명식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배재훈 HMM 사장, 김영주 무역협회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마다 발열을 점검하고 코로나 19 관련 문건을 쓴 후 행사장에 입장했다..

I . ISSUE & TREND

2. 해운사에 1 조 2500 억 추가 금융지원...선제적 유동성 공급

해양수산부가 코로나 19 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피해를 본 해운산업에 1 조 2500 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을 지원한다고 23 일 밝혔다. 선박의 금융지원과 매입 후 재대선을 확대하고 해운사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적 해운사의 올해 1 분기 매출액 감소는 전년 동기 대비 5% 미만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 감소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세계 무역 규모를 작년 대비 최대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이달 전 세계 유휴 선복량은 사상 최초로 300 만 TEU 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은 전년 대비 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시장 전망이 악화하고 있어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해운사가 보유한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에 총 1000 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통상 선박 시장 가격의 60~80% 수준인 선박의 담보비율(LTV)을 최대 95%까지 인정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존 매입 후 재대선(S&LB) 선박 전체에 대해 1 년간 원리금 납부를 유예한다. 이에 따라 지난 2 월 17 일 '제 1 차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에 따른 한중항로 운항선박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19 척이 연 235 억 8000 만원 규모의 원리금 납부 유예를 지원받는다.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추진하는 '선박 매입 후 재대선 사업'의 올해 재원은 기존 1000 억원에서 2000 억원으로 각각 1000 억원 확대한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재원 2000 억원 중 1000 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소진할 방침이다.

해운사에 대해 신규 유동성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 19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 총 1 조 6800 억원)'에 해운사 채권비중을 최대 2600 억원 수준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의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지원해 해운사 채권의 비중을 높이고 기업들의 후순위 매입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I . ISSUE & TREND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영세 중소선사에 대해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중소선사의 회사채를 최대 1000 억원까지 매입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해운사들이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국적 해운사 간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피인수·합병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인수·합병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이 유지되고 경영 여건 상 안정적인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최대 1000 억원까지 지원한다.

국적 원양선사인 HMM(구 현대상선)의 경우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관리 중이다. 이번에는 금융 시장 상황 등을 감안, 만기도래 선박금융 상환액 등 최대 4700 억원을 지원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글로벌 경기 악화와 매출 감소 간 시차가 있는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2 분기 이후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대책으로 해운사들에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해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 월 17 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 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3 월 2 일에는 '코로나 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대책', 3 월 17 일에는 '코로나 19 관련 한일여객항로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3800 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등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3. 운임 회복에도 웃지 못하는 벌크 시장

해운업계가 최근 운임 회복에도 울상이다. 운임은 3 월 이후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가 2 분기까지 지속되면서 물동량 위축 등 시황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4 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운 업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벌크 화물 운임 지수(BDI)는 지난 22 일 694 포인트로 전일보다 34 포인트 하락했다. BDI 는 올 들어 저점을 기록했던 2 월 중순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이번주 초 757 포인트까지 반등했다.

2 월 운임 급락에 따라 1 분기 BDI 는 평균 591 포인트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 2016 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았다. 1 분기 약세는 벌크선의 주요 화물인 철광석의 수출 차질이 원인이 됐다. 브라질의

I. ISSUE & TREND

폭우와 호주의 슈퍼태풍의 영향으로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 발레(VALE)의 1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7% 급감했다.

최근 벌크시장은 대형선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선인 케이프 시황은 지난 2월 사상 처음으로 운임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맥을 못추다 최근 비교적 활발한 성약이 이뤄지고 있다. 수요 유입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중국의 철광석 재고 구축 수요를 중심으로 운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

박성봉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BDI는 2월 바닥을 확인했으며 일단 반등에 성공하면서 2분기 중반부터 본격 상승을 예상한다"면서 "중국 건설 및 제조업의 가동률 상승으로 철광석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업계는 아직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최근 태평양 노선의 회복세와 달리 코로나 19가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세를 옮기면서 현재 해당 지역의 물동량 회복이 불투명한 상태기 때문. 유럽을 비롯해 미국, 남미 등 글로벌 제조업 섀다운이 이어지면서 주요 화물인 원자재 해상 물동량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철강 가동률 회복 등에 기대를 걸면서 각국의 제조업 섀다운 해소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가 벌크선 주요 화물인 철광석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일단은 중국 등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글로벌 제조업 부문의 회복세가 운임 및 물동량 회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4. 전세계 교역 급감 전망

전세계 교역이 올해 20~30% 급감하면서 세계 경제가 공포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으로 이미 2월까지 전세계 무역량이 줄어든 게 교역 지표에서 확인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후폭풍이 반영된 교역 위축 지표들이 추가로 압박했다는 지적이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은 전날 전세계 2월 교역은 전년동월비 2.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전월비로는 1.5% 줄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I . ISSUE & TREND

CPB 에 따르면 가장 먼저 코로나 19 가 확산된 중국은 1 월 수입이 7.3% 줄어든데 이어 2 월에도 3.2% 더 감소했다. 일본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감소폭이 커 2 월 수입규모가 전월비 9% 가까이 급감했다. 또 CPB 가 집계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2 월 산업생산 역시 전년동월비 9% 가까이 급감했다.

코로나 19 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이어서 미국의 2 월 교역규모는 1 월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유로존(유로 사용 19 개국)은 아시아 지역 수출이 충격을 받으면서 2 월 교역규모가 전월비 1.5% 감소했다.

문제는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수치는 코로나 19 가 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2 월 수치이다. 코로나 19 가 2 월말 이후 유럽과 미국으로 급속히 확산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감소폭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애덤 슬레이터 이코노미스트는 2 월 교역지표는 "코로나 19 체감 이전에도 이미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코로나 19 가 세계 수요과 공급망에 미친 충격을 감안할 때 앞으로 수개월간 세계 교역규모는 연율기준으로 두자리수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시장조사업체 오션 인사이트에 따르면 5 월까지 전세계 화물해운 출항 계획 가운데 20~30%가 취소됐다. 오션 인사이트가 이달 전세계 해운·화물 전문가 300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또 응답자의 71%가 화물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IHS 마킷과 JP 모간이 구매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3 월 설문조사에서도 수출은 2014 년 설문조사가 시작된 이후 사상최대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전세계 상업교역물량이 최대 3 분의 1 줄어들어 2008~2009 년 세계금융위기 기간 감소폭을 웃돌 것으로 비판한 바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개브리엘라 디킨스 이코노미스트는 "전체적으로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코로나 19 로 인해 올해 전세계 교역물량의 2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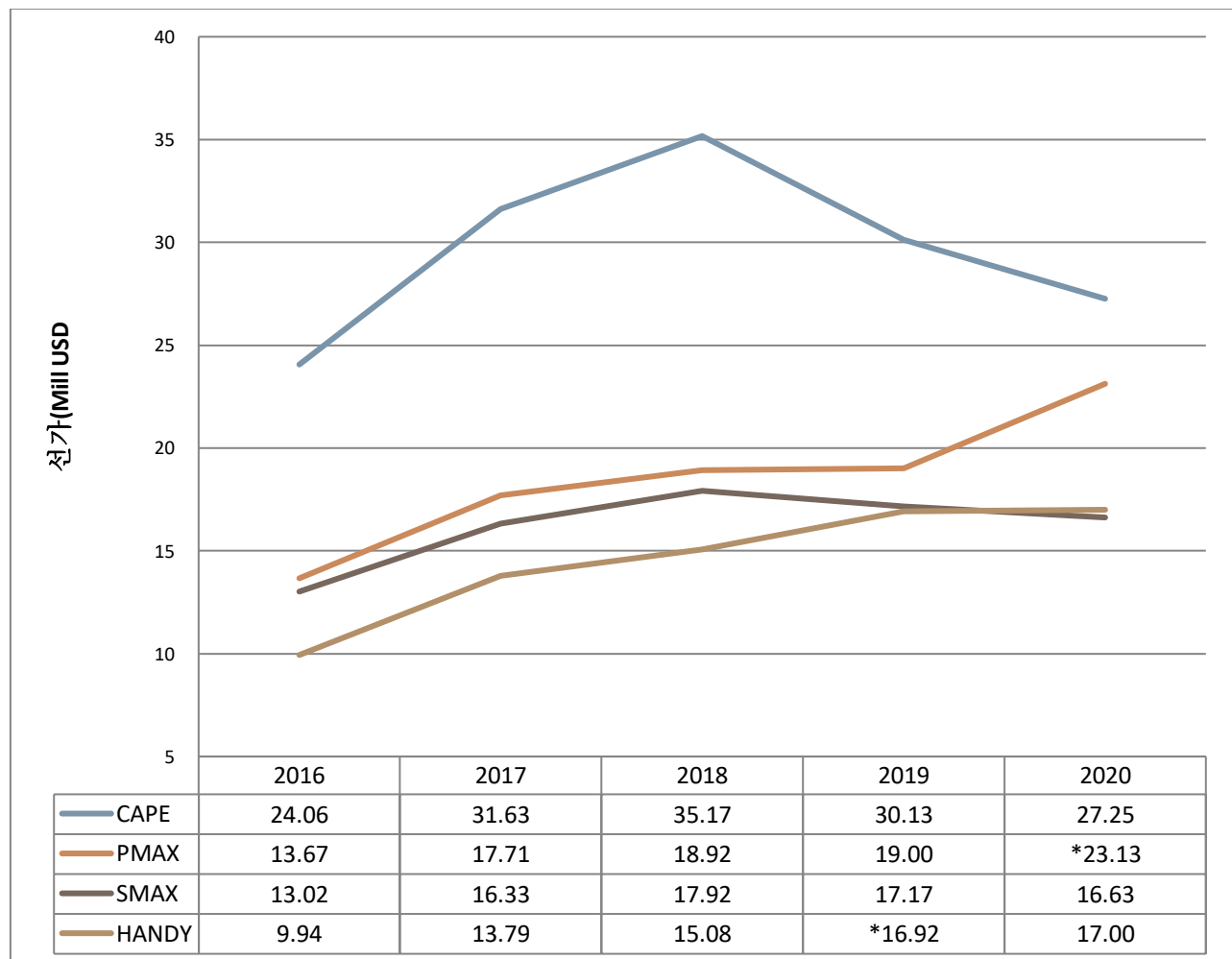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6	2017	2018	2019	2020
Capesize 180K	24.06	31.63	35.17	30.13	27.25
	-24.99%	31.43%	11.20%	-14.34%	-9.54%
Kamsarmax 82K	13.67	17.71	18.92	19.00	*23.13
*'19년까지는 76K 기준	-19.80%	29.57%	6.82%	0.42%	21.71%
Supramax 58K	13.02	16.33	17.92	17.17	16.63
	-16.91%	25.44%	9.69%	-4.20%	-3.16%
Handysize 37K	9.94	13.79	15.08	*16.92	17.00
*'18년까지는 32K 기준	-23.32%	38.78%	9.37%	12.18%	0.49%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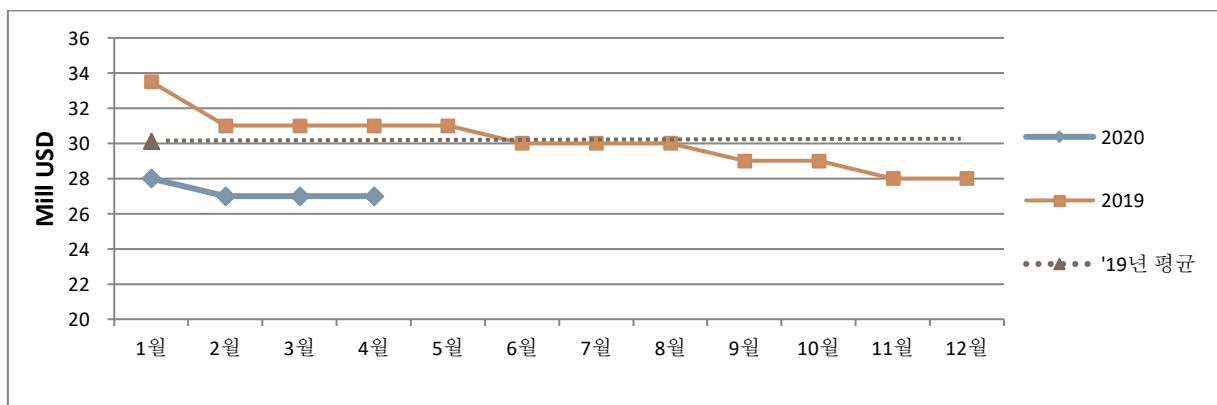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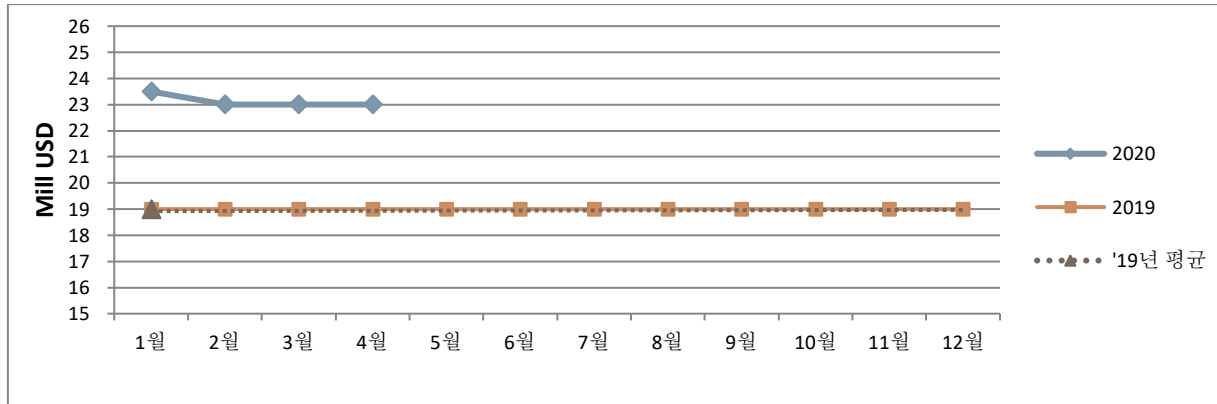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2020	CAPE 180K	선가	28.00	27.00	27.00	27.00			27.25
		전월대비	0.0%	-3.6%	0.0%	0.0%			-
		전년대비	-16.4%	-12.9%	-12.9%	-12.9%			-9.5%
	KMAX 82K	선가	23.50	23.00	23.00	23.00			23.13
		전월대비	23.7%	-2.1%	0.0%	0.0%			-
		전년대비	23.7%	21.1%	21.1%	21.1%			21.7%
	SMAX 58K	선가	17.00	16.50	16.50	16.50			16.63
		전월대비	0.0%	-2.9%	0.0%	0.0%			-
		전년대비	-5.6%	-2.9%	-2.9%	-2.9%			-3.2%
HNDY 37K	선가	17.00	17.00	17.00	17.00			17.00	
	전월대비	3.0%	0.0%	0.0%	0.0%			-	
	전년대비	0.0%	0.0%	0.0%	0.0%			0.5%	
2019	CAPE	33.50	31.00	31.00	31.00	31.00	30.00	30.13	
	PMAX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SMAX	18.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17	
	HANDY (37k)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6.92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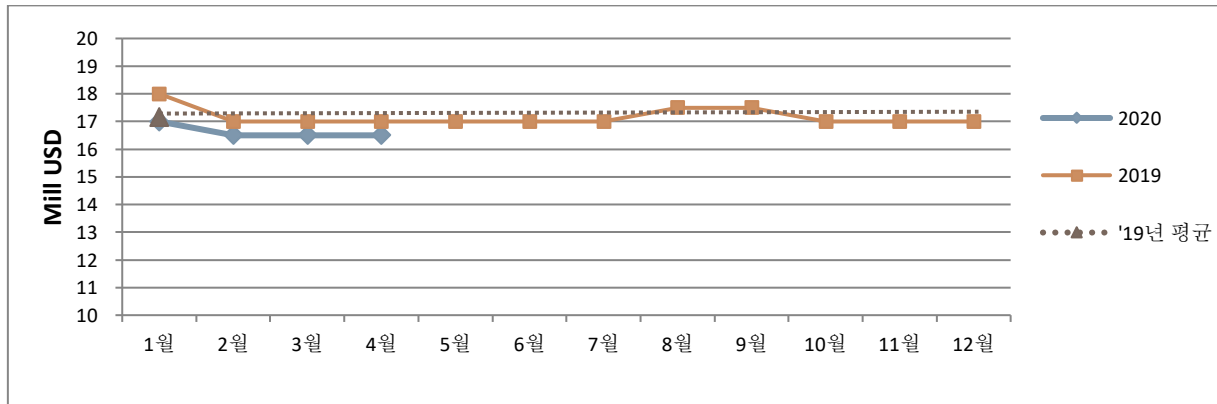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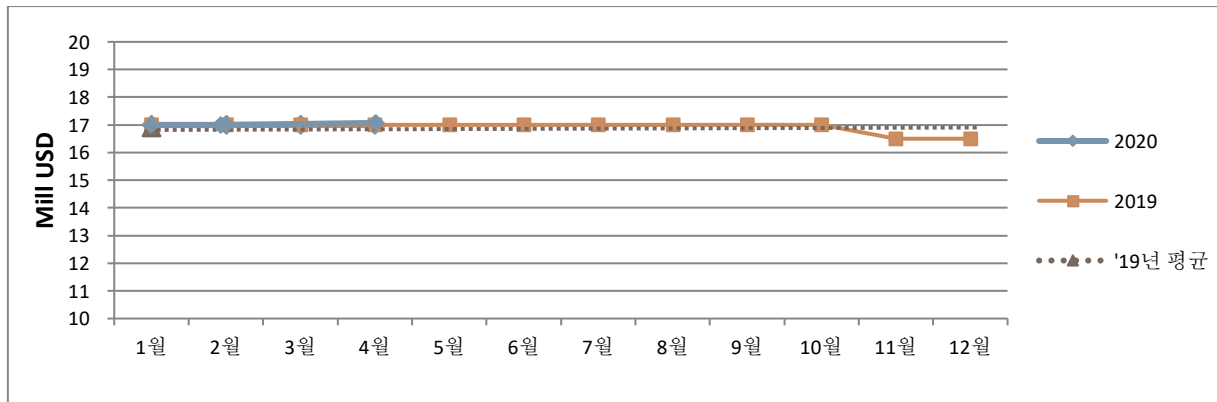
□ Kamsarmax *'19년까지는 76K 기준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BW BARLEY	83,369	2010	JAPAN	B&W		15.5	Norwegian buyer, incl. BWTS(not istalled)
BC	ILISSIS	63,555	2019	JAPAN	B&W	C 4x30.7t	26.3-26.5	UAE buyer (Abu Dhabi National Oil), BWTS fitted
BC	KIFISSOS	63,555	2019	JAPAN	B&W	C 4x30.7t	26.3-26.5	
BC	CONTI PERIDOT	57,001	2011	CHINA	B&W	C 4x30t	7.1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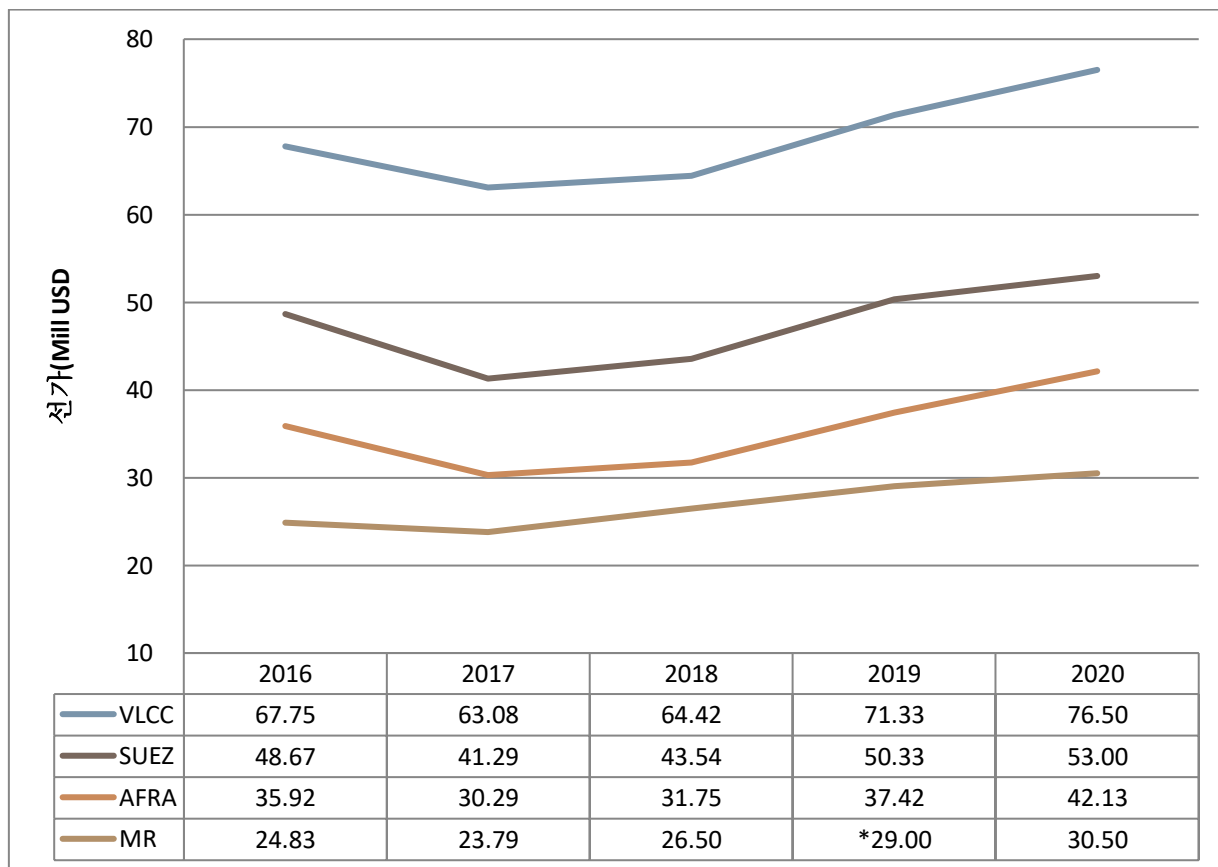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VLCC 310K	67.75	63.08	64.42	71.33	76.50
	-16.15%	-6.89%	2.11%	10.73%	7.24%
Suezmax 160K	48.67	41.29	43.54	50.33	53.00
	-18.34%	-15.15%	5.45%	15.60%	5.30%
Aframax 105K	35.92	30.29	31.75	37.42	42.13
	-21.24%	-15.66%	4.81%	17.85%	12.58%
MR 51K <small>*18년까지는 49K 기준</small>	24.83	23.79	26.50	*29.00	30.50
	-10.35%	-4.19%	11.38%	9.43%	5.17%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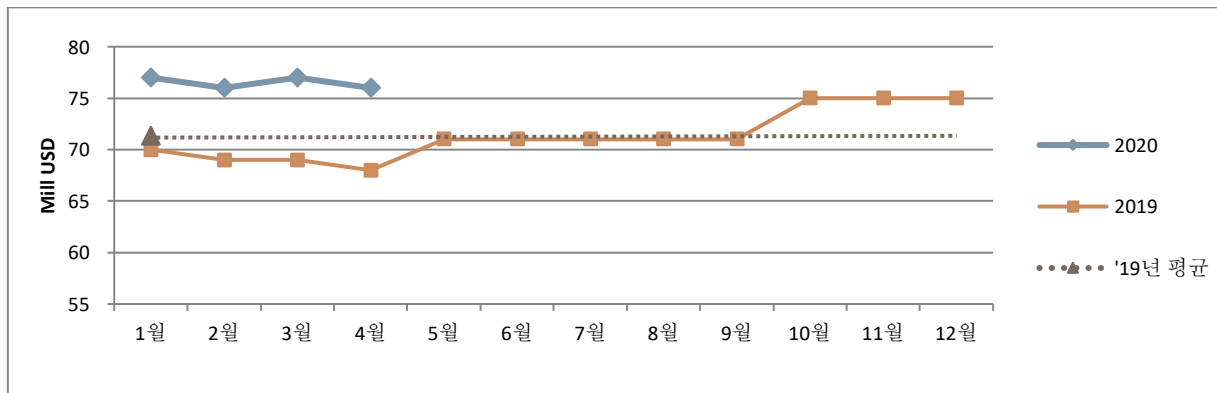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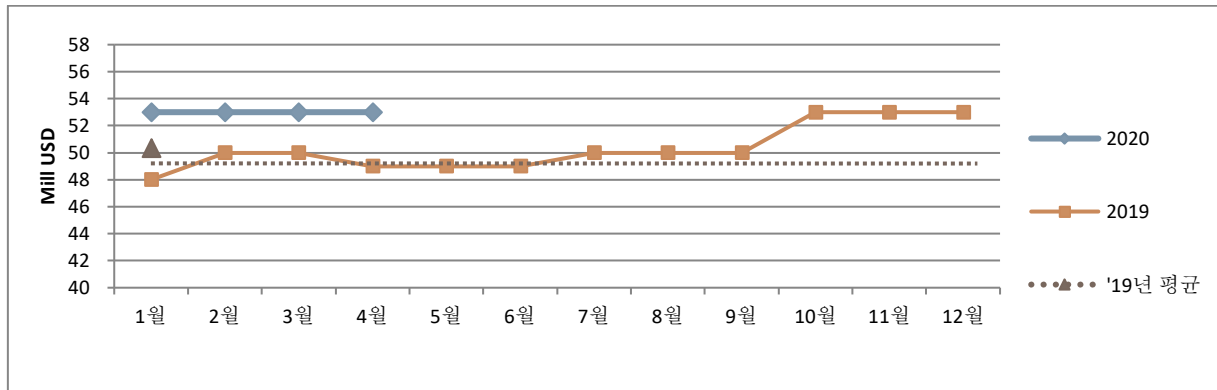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20	VLCC 310K	선가	77.00	76.00	77.00	76.00			76.50
		전월대비	2.7%	-1.3%	1.3%	-1.3%			-
		전년대비	10.0%	10.1%	11.6%	11.8%			7.2%
	SUEZ 160K	선가	53.00	53.00	53.00	53.00			53.00
		전월대비	0.0%	0.0%	0.0%	0.0%			-
		전년대비	10.4%	6.0%	6.0%	8.2%			5.3%
	AFRA 105K	선가	41.00	42.50	42.50	42.50			42.13
		전월대비	0.0%	3.7%	0.0%	0.0%			-
		전년대비	17.1%	21.4%	21.4%	21.4%			12.6%
	MR 51K	선가	30.00	31.00	31.00	30.00			30.50
		전월대비	0.0%	3.3%	0.0%	-3.2%			-
		전년대비	7.1%	10.7%	10.7%	7.1%			5.2%
2019	VLCC	70.00	69.00	69.00	68.00	71.00	71.00	71.33	
	SUEZ	48.00	50.00	50.00	49.00	49.00	49.00	50.33	
	AFRA	35.00	35.00	35.00	35.00	35.00	37.00	37.42	
	MR	28.00	28.00	28.00	28.00	28.00	29.00	29.00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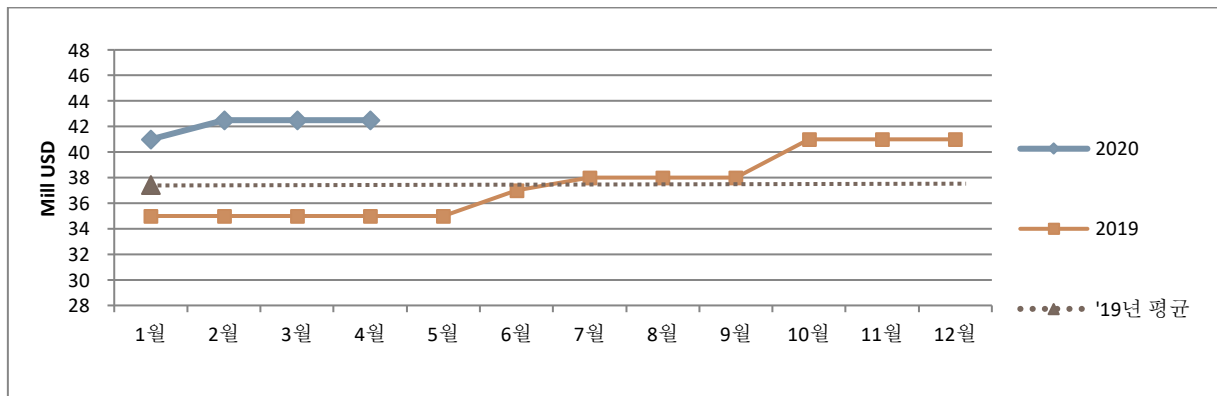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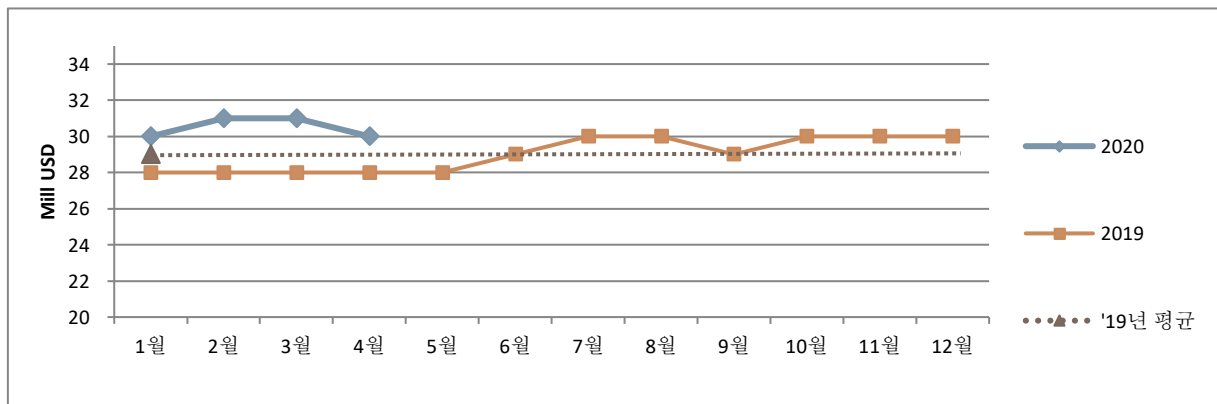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TI HELLAS	319,254	2005	KOREA	B&W		38.25	Greek buyer(Altomare)
TANKER	KELLY	314,026	2000	JAPAN	B&W			
TANKER	RENE	314,014	2002	JAPAN	B&W		95	Middle Eastern buyer
TANKER	MARBELLA	281,050	2000	JAPAN	MITS U			
TANKER	TAKASAKI	300,390	2005	JAPAN	SULZ		37.75	Greek buyer
TANKER	SCF CAUCASUS	159,173	2002	KOREA	B&W		19.5	Far Eastern buyer
TANKER	ETERNAL DILIGENCE	74,994	2006	JAPAN	B&W		11.4	Greek buyer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	-	-	-	-	-	-	-	-	-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8 평균		2019 평균		2020 평균		2019 년 4 월	2020 년 4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432.92	18.5%	396.39	-8.4%	360.00	-9.2%	426.67	306.67	-13.2%	-28.1%
BC	440.63	18.8%	398.75	-9.5%	359.58	-9.8%	436.67	310.00	-10.6%	-29.0%

❖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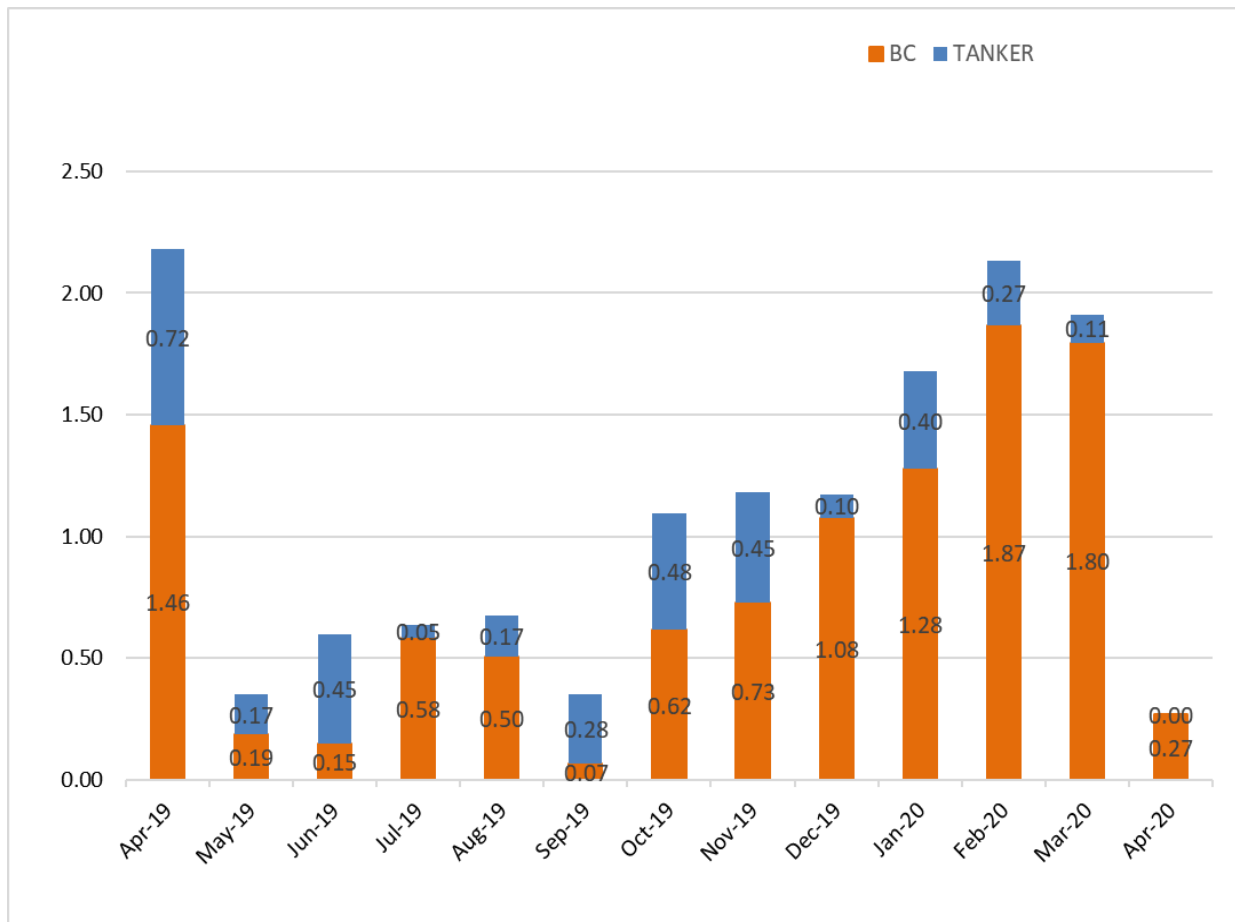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8 년		2019 년 누적			2019 년 4 월		2020 년 4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0.86	195	3.54	17.0%	97	49.7%	0.72	10	0.00	-100.0%	0	-100.0%
BC	4.20	112	7.45	177.3%	116	103.6%	1.46	15	0.27	-81.6%	1	-93.3%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V -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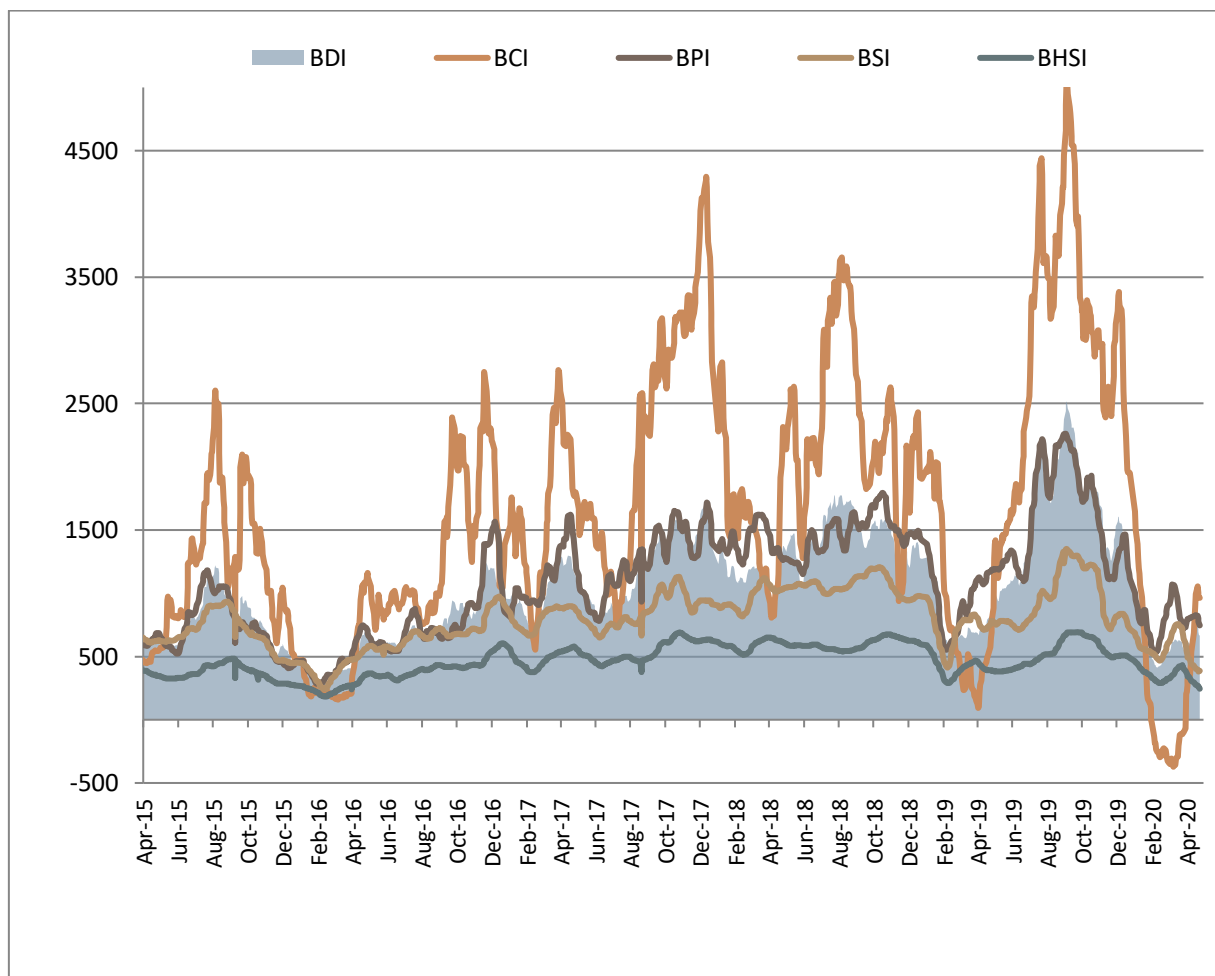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	-	-	-	-	-	-	-	-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20-04-24	2020-04-17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665	751	▼-86.00	2518	290
BCI	964	993	▼-29.00	5043	-372
BPI	747	825	▼-78.00	2262	282
BSI	388	404	▼-16.00	1351	243
BHSI	247	275	▼-28.00	692	183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165.50	▼-29.00	140.00	▼-36.00	117.00	▼-41.00
MGO	252.50	▼-11.50	205.50	▼-59.00	222.00	▼-44.50
LSMGO	232.00	▼-40.50	211.00	▼-59.50	-	-
VLSFO	225.50	▼-36.50	179.50	▼-39.00	174.00	▼-55.00

❖ 기준일 : 4 월 24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20-04-24	2020-04-17	CHANGE
미국 달러	1232.00	1227.50	▲4.50
일본 엔(100)	1145.03	1136.47	▲8.56
유로	1327.97	1333.00	▼-5.03
중국 위안	173.73	173.31	▲0.42

❖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STL NEWS & INFORMATION

[시사상식] - 보복 소비(revenge spending)

보복소비란? 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참아야 했던 소비를 한 번에 분출하는 것을 말함. 이때 소비자는 생필품보다 사치, 기호품 등을 주로 산다.

▶ 중국에서는 코로나로 급감했던 부동산 거래가 재개되면서 기록적인 판매 실적이 쏟아졌다. 광둥성 선전에서 분양한 아파트 288 채가 7 분 만에 다 팔렸다고 한다. 73 억원짜리 초고가 주택 14 채는 8 초 만에 완판됐다. 장수성 쑤저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2000 억원에 상당하는 1 개 동 전체가 분양 1 분 만에 거래됐다. 3 개월간 문 닫았다 얼마 전 재개장한 광저우의 한 명품 매장은 하루에 33 억원어치를 팔아 화제를 모았다.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소비가 갑자기 폭발한 현상을 두고 중국에서는 '보복성 소비'라고 부른다.

▶ 10 여 년 전 제니퍼 러너 하버드대 교수팀이 18~30 세 33 명을 대상으로 슬픈 영화와 무덤덤한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뒤 물병을 사게 했다. 실험 결과, 슬픈 영화를 본 그룹에서 30%가량 더 많은 돈을 썼다. 슬프고 우울할수록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데, 대신 비싼 소비로 이를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소비'는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 그 이상이다. 인간 심리와 직결돼 있다. 국내 성인 1000 명을 조사했더니 직장, 인간관계, 가사·육아, 취업으로 인한 일상의 스트레스나 우울함을 '나를 위한 소비'로 푼 적이 있다는 응답이 열에 아홉이었다.

▶ 원래 보복 소비(REVENGE SPENDING)는 배우자에게 과소비로 보복하기 위해 사치품 등을 흥청망청 사들이는 걸 뜻한다. 지금은 코로나에 보복하듯 미뤄 둔 소비를 한꺼번에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코로나 때문에 외식도, 쇼핑도, 여행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콕 박혀 있느라 힘들었기 때문에 일종의 '보상 소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5 월 초 노동절 황금연휴에 이 '보복성 소비'를 폭발적으로 늘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최대 소비 도시 상하이시는 '5·5 쇼핑데이'를 기획하고 있다.

▶ 우리도 '보복 소비'든, '보상 소비'든 뭐든 활성화되어서 코로나로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나 피해 기업의 매출이 회복되면 좋겠다. 하지만 코로나 불황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업 매출이 반감하면서 실물경제 타격은 이제 시작이다. '보복성 소비'가 훗날 일어나려면 결국 기업이 살아야 한다. 그래야 연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기를 기대한다.

[출처 :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



VII. CONTACT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Personal)

| **RESEARCH**

Anna Lee (이혜란 과장)
 Manager
 Tel. 070-7771-6403
 Mob. 010-2258-5561
 snp@stlkorea.com
 anna@stlkorea.com(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Personal)

Mike Hong (홍창목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Mob.010-4855-8055
 snp@stlkorea.com
 mikehong@stlkorea.com
 (Personal)

| **AGENCY OPERATION** (오수현 차장 Tel. 070-7771-6402)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 기업/일반 단체 (이현성 부장 Tel.070-4800-0153)
 | 항공 예약 (김영하 실장 Tel.070-4800-0151)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010-2777-4027)